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2호 【루계 제2510호】

주체107(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음력 8월 2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여 교원, 연구사들을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하시여 교원, 연구사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며 자나깨나 안기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순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참가자들은 창립 70돐을 맞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려 바쁘신 시간을 내여 대학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과 인민경제의 자립적발전,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대학이라고, 이 영예로운 대학의 창립 70돐을 맞으며 교원, 연구사들을 직접 만나 축하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사업에 헌신분투해가고있는 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김책공업종합대학 혁명사적관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종합적인 첫 공업기술대학을 창립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대학중의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이 대학의 과학교육사업을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경제강국건설의 열쇠도 손에 확고히 틀어잡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70년의 자랑찬 년륜을 아로새겨온 빛나는 전통을 꿋꿋이 이어 앞으로도 과학기술연구와 인재양성의 자랑찬 성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 붉은 과학자들로 키워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전변시키는것이 우리 당중앙의 의도이고 혁명의 요구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 개막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이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1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사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최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어번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체육기술과 집단의 조직력, 단결력을 시위하고 높은 경기성적을 쟁취함으로써 우리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찬가》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체육대회 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황해북도와 라선시사이의 남자배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각계층 근로자들과 가두녀성들, 청소년학생들, 체육인들이 참가하며 평양시안의 경기장, 경기관 등에서 전문체육부문경기, 대중체육부문경기,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을 진행하게 된다.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과학탐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1 95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창의고안, 새 기술제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1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박철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인 실천강령

지금 온 겨레와 전세계는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에 세찬 충격과 감동의 격랑에 휩싸여있다.

긴긴 세월 민족분렬의 고통과 한을 새기며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은 더없이 소중하다.

지난해말까지만 하여도 일각에서는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터지고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었다.

그러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빛이 흘러들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여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자주통일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북과 남은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여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들을 련이어 만들어내고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사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였으며 국제경기들에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민족의 기상과 영예를 떨침으로써 온 겨레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북남사이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의의있는 사업들이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원칙에서 일관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확고히 견지해온 결과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진행된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려는 민족자주의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력사의 새 출발을 알린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인 실천강령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과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온 겨레의 꿈이 담겨져있다.

민족의 새로운 희망과 강렬한 통일열망을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모두가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뜻과 마음을 합쳐 평양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그 어떤 반통일세력이 막아나서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철리이다.

온 겨레는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마련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보폭을 맞춰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조선반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계기

여러 나라 정부들 환영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세계 각국 정부들의 지지환영을 받고있다.

로씨야외무성이 공보를 발표하여 제5차 북남수뇌회담의 결과를 환영하는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공보는 평양에서 있은 북남수뇌회담과정에 이룩한 합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쌍방은 조선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지향을 확인하고 정치, 군사, 경제 및 인도주의분야들에서 협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공보는 모든 관련국들이 정치외교적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기타 문제들을 조속히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몽골대외관계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와 문재인대통령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또다시 진행된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발표된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의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라오스외무성은 조선반도정세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관련국들이 훌륭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뛰르끼예외무성은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9월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외무성은 평양에서 진행된 상봉이 조선반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꼴롬비아외무성은 조선인민의 념원일뿐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의사인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되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니까라과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이 서로 협조해나갈것을 주장하였다.

캄보쟈, 웰남, 인디아, 벨라루씨, 도이췰란드, 브라질, 메히꼬, 우루과이, 에꽈도르, 꼬스따 리까 등 많은 나라 정부들도 북남수뇌분들께서 서명하신 《9월평양공동선언》이 리행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열릴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통일의 위대한 령수를 우러릅니다

풍요한 가을계절에 평양에서는 민족사에 불멸할 경이적인 화폭들이 펼쳐졌다.

상봉의 시작부터 환송의 마감까지 충격과 파격, 감동의 련속인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을 보면서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비록 70여년의 민족분렬사에 2박3일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이 나날 위대한 인간, 민족의 걸출한 령수의 존안은 우리 민족과 세상사람들의 가슴속에 잊을수 없는 만고절세의 위인상으로 깊이 새겨졌다.

천하를 감동시킨 극진한 환대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평양상봉은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풍모가 누리에 빛발쳐간 격정의 시간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존경하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 일행을 마중하기 위하여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신것은 겨레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비행장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마중할 때 2인자, 3인자영접이 국제관례로 되고있다는 점에서 최고령도자님께서 부인과 함께 나오신것은 대단한 《특례》가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더우기 손님에 대한 일반적례의가 아니라 먼길을 찾아온 친지분을 동구밖에까지 나가 마중하시듯, 오래간만에 만나는 혈육을 맞으시는듯 환하신 존안으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뜻이 손잡아 반겨주시고 뜨거운 포옹을 하실 때 우리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매하고 숭고한 인품을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21발의 례포가 울린 속에 진행된 영접행사와 10만여명이 꽃바다를 펼친 환영연도에로 대통령일행을 떠밀어주시던 다정한 손길에서도, 친히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안내하여주시는 다심함에서도 그이의 뜨거운 인정미와 고결한 인간애가 가슴후덥게 안겨왔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희한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민족화합의 열기를 드높이시고 문재인대통령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시며 15만 북녘동포들앞에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하도록 내세워주신 대해같은 도량과 인품에서 겨레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혈연의 정으로 파도쳐오는 절세의 위인상을 깊이 새기였다.

2박3일의 짧은 나날 무려 14차례나 관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참관지마다에 먼저 나오시여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맞이해주시고 겸허하고 소탈하신 풍모로 많은 일정들을 함께 하시는 령도자님의 거룩한 모습은 참으로 친애와 신뢰의 절정이였다.

나는 평양수뇌상봉기간 베푸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감동깊은 배려와 보살피심은 단순히 대통령일행만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남의 화해와 개선을 기원하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고대하는 남녘민중모두에게 기울이시는 열화의 보살핌과 따뜻한 동포애이며 8천만겨레모두를 한품에 안으시는 광폭의 민족애인것이다.

판문점에서 새 출발을 한 북남관계가 9월의 평양상봉으로 가속화를 이룬것은 민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내세우시는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태양같으신 광휘로움과 고결한 인정의 세계에 그 원천이 있다고 확신한다.

성스러운 려정에로의 굳은 약속

《력사적인 대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전환점》, 《판문점선언이라는 꽃망울이 평양공동선언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력사에 길이 남을 장엄하고 극적인 성공》

이것은 북남수뇌분들이 서명한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겨레와 세계의 격찬이다.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공동선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바치신 통일헌신의 소중한 결정체이다.

판문점상봉에서 력사의 새 출발을 선언한 북남관계였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평화의 봄은 왔으나 내외통일방해세력은 여전히 독기서린 설풍으로 판문점의 봄기운을 얼구어보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대의를 기치로 드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북남관계가 멈춤이나 탈선이 없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궤도로 드팀없이 전진하도록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동포애, 억척의 견인력이 있어 판문점선언리행을 더욱 가속화할수 있는 힘있는 동력이 마련될수 있었던것이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번영의 래일을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숭고한 웅지와 열렬한 민족애는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확고히 표명되였다.

음미해보면 공동선언에는 민족의 힘, 민족의 의지로 적대와 단절의 시대를 걷어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대책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자자구구 명시되여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표현에도 최고령도자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정신이 력력하다.

구절구절마다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삼천리, 민족공동번영의 래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하나된 통일강국을 일떠세워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려는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고 강국으로 당당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위상 떨치려는 겨레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다.

《민족적화해》, 《민족자주》, 《민족의 숨결》, 《겨레의 넋》 등 평양공동선언서명이후 공동발표에서 하신 민족애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어느 누가 감복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민족이 힘합쳐 화해와 협력, 통일의 대하가 되여 통일의 대로, 평화번영의 활로를 따라 도도히 나아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민족애, 겨레사랑으로 마련된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의 령수, 절세의 위인께서 우리 겨레에게 또다시 안겨주시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물, 평화가을의 고귀한 열매이며 신성한 통일려정에로 향한 굳은 약속이다.

백두산은 민족의 대사변을 축복한다

메부리 창공높이 거연히 솟아 숭엄한 웅자를 자랑하는 백두산은 삼천리강토의 조종의 산이고 겨레의 시원지로 숭앙되는 민족의 성산이다.

천지의 룡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랐고 아흔아홉명의 선녀가 미역을 감았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전설 또한 많은것으로 유명한 백두산에 오늘 또 하나의 《전설》이 태여났다.

력사의 9월 20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일행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그날 백두산의 날씨는 민족의 통일회원을 담아서인지 류달리 쾌청하였다.

백두산에 가더라도 남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을 밟으며 오르고싶었다는 소망을 안고있는 문재인대통령과 그 일행만이 아니라 남녘의 민중이, 8천만 우리 겨레모두가 경애하는 그분과 함께 민족의 성산에 올랐다.

삼천리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백두산의 웅건장중함과 민족의 혈맥처럼 뻗어간 천리수해를 부감하시며 최고령도자님께서는 민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밝혀주는듯 백두산 창공에 찬란히도 빛나는 태양의 빛발속에 문재인대통령과 두손을 맞잡아 높이 드시고 장군봉에서, 천지호반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민족의 뜻과 힘을 모아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가실 신념을, 천지의 맑은 물에 세기의 붓끝을 적시여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백두산악같은 신념과 의지를 력사의 화폭으로 민족사에 새기신 그 기념사진은 9월의 감동의 극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손을 잡으실 때 백두와 한나가 하나로 되였고 굳게 잡은 손을 백두창공에 높이 추겨드실 때 민족의 밝은 미래를 기어이 안아오실 통일령수의 신념이 백두산악으로 더욱 억세여졌다.

4월의 상봉으로 분렬과 대결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을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게 하시였고 9월의 만남으로 민족의 성산, 조종의 백두산을 통일번영의 성지로 빛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백두산은 통일번영의 성산으로 세기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리 해외동포들이 잠결에도 오르고 오르던 민족의 령산, 통일의 성산인 백두산은 이제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충만된 깨끗하고 순결한 열정으로 북남수뇌분들이 내딛은 백두산에서의 통일장정의 큰 보폭에 씩씩한 발걸음 맞추는 겨레의 대진군을 길이 증견할것이다.

통일번영의 성산으로 더 높이 발돋움한 백두산은 9월의 통일《전설》을 새롭게 전하며 겨레를 통일진군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있다.

시대는 위인을 따라 전진한다는 말을 재삼 실감하게 하는 평양수뇌상봉이다.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포옹력, 확고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앞길에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 시련을 앞장서 헤쳐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감동과 격정이 매혹과 흠모의 대하가 되여 백두에서 한나까지 굽이치고 지구를 격동시키고있다.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정을 련속적인 충격과 감동속에 바라본 남녘동포들은 《통이 크신 **김정은**위원장님 참 멋지다!》, 《**김정은**위원장님 직접 나오셨군, 얼마나 영광인가? 태양과 포옹하다니 눈물난다.》, 《모든 인민들이 **김정은**위원장님을 믿고 신뢰한다. 더 이상 극우세력들의 롱간에 놀아나지 말자.》, 《**김정은**위원장의 진솔함, 본인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함 등 너무 례의바른 자세를 볼 때마다 기대이상이다.》, 《**김정은**위원장님 정말 훌륭합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자!》라며 백두산위인에 대한 경하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3일간 넋과 마음을 평양의 화폭에 기울인 우리 해외동포들도 극적인 명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목청껏 만세를 불렀으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김정은**원수님은 통일력사의 위대한 창조자》,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해 우리도 한몫하자!》고 하면서 저저마다 격정을 토로하였다.

파격, 최초, 최고로 규정지을수 있는 9월의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의 전 과정은 반목과 질시, 적대와 대결, 불신과 론쟁의 낡은 타성들을 상상을 뛰여넘는 결단과 탁월한 지략으로 흘날려버리시며 오래동안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본래의 하나된 모습을 찾고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앞날을 당겨올수 있게 하여주신 만고절세의 위인상의 최고정화였으며 그이께서만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실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이 우리 해외동포사회에도 깊이 자리잡게 한 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따르고 받들때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

바로 이것이 평양의 민족사적사변에 격정을 터치며 8천만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진리이다.

재중동포 김혁정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이 땅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불신과 대결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오늘과 같이 신뢰와 화해, 단합과 평화안정으로 급전환하고 북남관계가 과거의 몇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전진하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열렬한 민족애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겨레의 통일지향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통이 큰 구상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새해는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라고 하시며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언명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올림픽개폐막식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고 공화국의 예술단,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이 파견되여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금후 북남관계개선발전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원대한 구상과 통이 큰 결단은 시간이 감에 따라 온 겨레의 경탄을 자아냈다.

세인의 이목과 관심이 조선반도로 쏠리고있을 때 분렬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판문점에서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이 있었다.

그처럼 높게만 보이던 분렬의 장벽, 함부로 넘지 못하는것으로만 생각했던 판문점분리선을 한걸음에 넘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면서 사람들은 민족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굳센 통일의지를 페부로 절감하게 되였다.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흐름을 더욱 추동해나가실 확고한 결심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은 때로부터 불과 한달만에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북남관계발전에 더 큰 희망과 활력을 부어주시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에서 또다시 마련된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 담긴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시였으며 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열렬한 통일의지로 심장을 끓이시며 뜨거운 민족애와 포옹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통이 큰 결단에 의해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온 겨레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무한한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열렬하고 뜨거운것인가를 다시금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또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동포애와 인정미, 무한대한 도량과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민적풍모를 체득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겨레는 백두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다가오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우리 민족의 래일을 확신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에 오르신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여 《서울신문》은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성산에 오른것은 정말 대단한, 통일의 징조를 보이는 의미있는 일이다. 백두산에서 남북정상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것은 8천만민족과 전세계에 〈우리가 이젠 평화로 간다.〉, 〈평화의 첫 출발은 백두산〉이라고 전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김영림

인민의 긍지와 환희가 넘치는 10월

조선로동당 창건일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뜻깊은 날을 맞는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당기가 나붓긴다. 마치와 낫, 붓이 새겨진 붉은 기폭에는 조선로동당의 70여성상의 력사가 비끼여있다. 당기의 힘찬 펴덕임소리에는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인민의 마음, 인민의 목소리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모신 조선로동당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줄기차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자주위업실현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빛나게 구현하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는 당이며 투쟁하는 당이다, 당을 위해 조국이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당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며 당을 명실공히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어머니당으로, 존엄높고 권위있는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새로 개원된 함경북도인민병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병원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병원설계를 보건의학적요구와 특성에 맞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서와 병원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전반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병원설계를 인민병원의 성격에 맞게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마크에 마치와 낫, 붓을 새겨넣은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발휘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의 인민보건정책과 시책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미치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였다.

인민을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하나의 시책을 펴도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과 요구,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철저히 구현하기때문에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것이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강대성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성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가슴벅차게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삼고 강력한 국가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 몇해전 새로 건설된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을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집주인들과 담소도 나누시고 생활형편도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로인에게 앓지 말고 건강하여 로동당시대에 장수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였다.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인덕정치와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뜻이 담겨져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이 땅우에 수풀처럼 일떠선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 릉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수많은 재부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로동당시대의 빛나는 창조물들이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에 사람들은 70여성상 나라와 인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커다란 업적을 쌓은 조선로동당에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당을 가진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느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강국건설의 근본담보이며 나라의 불패성의 원천이다.

본사기자 리설

명장면을 떠올리는 민족의 마음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의 전 과정을 온 겨레는 무한한 격정과 환희속에 목격하였다. 지금도 그 나날들에 달아올랐던 감격의 여운으로 가슴들먹이는 우리 민족이다. 만약 상봉과정들에서 제일 멋진 장면이 어느것인가고 물으면 민족성원 누구나 하나같이 대답할것이다.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북남수뇌분들의 모습이라고.

왜 그렇지 않겠는가. 백두산은 우리 겨레가 수수천년 이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오면서 민족의 행운을 기원하며 숭배하여온 민족의 령산이다. 그래서 민족수난의 시기에는 백두산을 바라보며 조선을 독립시켜줄 위인이 탄생하기를 애원하였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지펴올리신 항일의 총성이 높이 울려퍼지는 백두산을 우러르며 민족의 해방을 확신하였다.

그러한 조종의 산에 오늘은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그리시며 오르시였다.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에 령묘한 정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놓은 백두산, 그 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웅건장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부감하시였다.

백두산천지호반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의 손을 잡으시고 하늘높이 쳐드신 모습은 명장면중의 명장면이였다.

수뇌분들께서 맞잡으시고 힘껏 추겨든 손—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과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후손들에게 펼쳐주시려는 드팀없는 결심과 조선민족은 갈라질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의 힘모아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강렬한 의지를 온 세상에 천명한 력사적화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번 상봉과정에서 최절정은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동반방문이였다고 하면서 《북남정상내외가 민족의 령산으로 불리우는 백두산천지를 동반산책한것은 큰 상징성을 띤 력사의 명장면이다.》, 《두 정상내외가 백두산에 선 그 장면만으로도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감동을 줄것이다.》, 《**김정은**위원장과 문재인이 백두산에 함께 올라 손을 굳게 맞잡고 활짝 웃은것은 한반도평화를 다지고 북남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주추돌을 놓은 북남정상의 화려한 례식으로 된다.》고 하였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며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최초의 극적인 명장면을 마련하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뜻깊은 행보로 백두산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고 온 겨레는 민족의 밝은 앞날을 확신케 하는 명장면을 새겨안을수 있었다.

참으로 이 명장면은 출중한 위인적풍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민족대단합실현에서의 고귀한 결실이고 빛나는 정화이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여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하루빨리 안아올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환히 웃으시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시는 북남수뇌분들의 불멸의 영상을 새겨안고 존엄높고 부강한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매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시묶음

평양의 9월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부른다

9월의 선언따라 평화와 번영에로!

리 송 일

심장을 터치는 웨침 아니고서야
이 감격 이 환희 어이 다 말하랴
아, 《9월평양공동선언》!
새로운 희망으로 세차게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맥동치는 통일의지여

구절구절 우리 겨레 소망이여라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민족의 꿈이로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삼천리
이 얼마나 가슴벅찬가
선언에 비낀 우리 겨레의 미래가

이날을 삼천리에 펼쳐주시려
4월의 그 봄날 판문점의 분리선
과감히 넘으셨던 원수님
평화번영의 의지로 가슴끓이시며
다시 판문점으로 달리셨던 5월이여

그 결단 그 의지로
이 행성 충격으로 뒤흔들며 터치신
장엄한 애국애족의 선언이여라
민족의 운명 맡아안으신 우리 원수님

겨레에게 주고싶으신 그윽한 정 뜨거운 열
선언의 글줄마다 뜨겁게 어리였구나

그 빛발 비껴 찬란한 저 맑은 하늘
이제 더는 불구름을 모르리라
그 푸르른 하늘아래 줄기차게 뻗어갈
평화와 번영의 두줄기 궤도따라
삼천리엔 민족단합의 대하 도도히 굽이치리라

산천초목도 격정에 설레이여라
평화와 번영에로 향한 성스러운 려정
그길에 우뚝 솟은 《9월평양공동선언》
4.27로 펼쳐진 새시대
9월의 정신으로 꿋꿋이 이어나가자

아, 8천만겨레여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자
분렬로 당한 70여년의 치욕 씻어버릴
민족공동번영의 이 선언
민족의 넋이 담긴 《9월평양공동선언》을

천지의 푸른 물은 정히 비껴안으라

우러를수록 12월의 장설을 헤쳐
백설이 흩날리는 령봉에 오르시였던
거룩한 그 모습 그대로이시다
그날의 뜻깊은 자욱 력력한 산정에
위대한 자욱을 새기시는 원수님
그이 따라 백두산에 오르는 겨레의 마음이여

태동하는 평화번영의 새시대
뜨겁게 호흡하시며
백두산상 장군봉에 오르신 우리 원수님
밝아올 통일조국의 려명을 부르시는가

태양의 눈부신 그 미소에
삼천리는 하늘아래 제일 아름다워라

민족의 령산으로만 성스럽더냐
통일의 성산으로 솟아 더욱 숭엄하여라
마를줄 모르는 천지의 푸른 물로
그이 줄기차게 써나가실 통일의 새 력사
한나산 저 끝까지 한눈에 안겨온다

오, 통일의 단상에 오르신듯
웅건장중 산악우에 서계시는 원수님
겨레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여
장엄한 력사의 증견자 백두산
오, 백두산에 통일의 태양이 빛난다!

백두산에 통일태양 빛난다

김 태 룡

삼천리 이 강토 한지맥으로 안고
수수천년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일만산악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
보느냐, 8천만겨레여
북남수뇌분들 산정에 오르시였다

시간이여 새기라 격동의 순간을 담으라
두 수뇌분들 굳게 잡은 손

부쩍 하늘높이 추켜올리실 때
드디여 백두와 한나가 손을 잡았는가
분렬세월의 무거운 쇠사슬 털어버리고
삼천리도 지동치며 일떠서느냐

태고의 정적을 깨뜨려 격정 떨치라
천리수해는 솨솨— 감격을 터치라
민족사에 처음 새겨진 특기할 이 화폭
백두여, 첩첩층암에 길이 새기고

끝까지 가자 민족번영의 길로

리 창 식

환희와 감동의 순간순간이였다
평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통일을 어떻게 소원하는지
온 세계가 격정속에 지켜본
평양의 그 2박3일은

가슴 젖어와라
넓으신 도량 뜨거운 포옹력으로
9월의 사변 안아오신 원수님모습 어려와
겨레의 마음속에 오늘도 끝나지 않은
9월의 평양상봉이여

그날에 우리 보지 않았더냐
남녘의 대표들을 맞아
그이 안광에 넘치던 환하신 미소
최대의 성의 극진한 환대속에서
그이 가슴에 끓는 열화같은 민족애를

그이 뜨겁게 맞잡으신 손
《9월평양공동선언》의 구절구절에서
불신과 대결의 력사 끝장내고

대화와 협력의 새시대를 펼쳐갈
절세의 애국자 우리 원수님
통큰 결단과 산악같은 의지를

그 신념 그 의지로
삼천리에 태동하는 화해와 단합의 열기
헤여져 산 아픔 너무도 잘 알아
북에서 남에서 해외에서
온 겨레가 열광한 9월의 환호성이여

식히지 말자 9월의 평양열풍
민족의 번영과 부흥
겨레모두가 바라는 꿈이 있고
그려보아 황홀한 미래가 눈앞에 보여와
뜨겁게 달아오른 후더운 가슴들을

영원히 놓지 말자 겨레여
우리가 살고 후손들 복락할 래일을 위해
평화번영의 길 손잡고 함께 가자
통일의 대통로 더 넓혀나가자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

《9월평양공동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자주는 자기 민족의 일을 자기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정신이고 의지이며 동력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가 있다. 다시말하여 민족자결권은 매 민족에게 부여된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다.

이번에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안에 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고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모두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천명된대로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간다면 북남관계에서 해결 못할것이 없으며 조국통일의 미래는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지금은 누구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그 어느때보다 제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자각과 립장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리 어 금

북남수뇌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여러 나라 언론들과 단체들이 지지환영

력사적인 북남수뇌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남관계의 가속적발전과 조선반도지역의 평화번영에 공헌한 력사적의의로 하여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세계여론은 회담이 민족간 불신과 대립, 동족상쟁의 시대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동력으로 되였다는데 주목하고있다.

9월 21일 중국보도망은 《북남관계가 계속 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반도가 평화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날 북남수뇌분들은 반년안에 3차례나 상봉하였다, 이러한 빈번한 만남은 북남의 최고위급래왕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쌍방사이의 교류와 화해협력과정이 이미 급행주로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도 회담소식을 전하면서 북과 남이 《전쟁없는 시대》를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에 대해 강조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완화에서 중대한 진전》, 《북남간의 사실상의 불가침합의》, 《실질적인 종전선언》 등으로 평가하고있다.

지금 세계여론은 회담을 중국, 로씨야를 포함한 주변국들모두가 지지하고있는데 주목하면서 회담이 지역의 평화보장에서 논 역할을 공인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도 평양수뇌회담에 대해 《조미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중요한 합의》, 《조미사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서 새로운 희망》 등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조선반도평화, 번영의 또 하나의 리정표로 되는 평양수뇌회담과 선언의 정당성과 의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념원하시였고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바라던 조선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이번 북남수뇌상봉은 조선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는 제5차 북남수뇌회담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이딸리아에 있는 조선의 벗들은 회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성명하였다.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이번 북남수뇌회담이 뜨거운 동포애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선통일의 대문은 더욱 활짝 열려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우리 겨레에게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펼쳐준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발표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여러가지 교류와 협력사업을 벌려나갈것을 약속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여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과정은 곧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 길이다.

북과 남은 이미 지난 시기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좋은 성과를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며 군사분계선일대의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끊어졌던 북과 남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였으며 그 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화해와 단합의 대하가 용용히 굽이쳤다.

근 2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꿈에라도 가보는것이 소원이였던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마음껏 올라 밝아오는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들먹이였다.

개성공업지구를 놓고보아도 여기에 120여개에 달하는 남측기업들이 입주하여 공동번영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으며 그와 련관된 6 000여개의 협력업체들과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남측근로자들이 북남협력의 혜택을 톡톡히 입었다.

박근혜패당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개성공업지구가 페쇄된 후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외국에 진출한 입주기업들은 생산성, 근로자로임, 수송비 및 기일, 관세 등 여러 측면에서 그 나라들과 개성공업지구를 대비조차 할수 없다고 하면서 공업지구가 재가동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립장을 밝히고있다.

남조선의 지방자치단체들도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사업에 적극 나설 의지를 피력하고 그를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양수뇌상봉이후 북남교류협력사업을 전문으로 맡아할 특별기구들을 새로 조직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민족공동번영선언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흐르게 될것이며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

남조선 여러 정당들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정치권이 적극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민주개혁정당들이 력사적인 평양수뇌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온당치 못한 소리를 해대는 보수야당의 치졸한 행태를 비난하며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정치권이 적극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정당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이라는 거대한 리익앞에 이제는 여야모두가 한마음이 되여야 한다, 무슨 《실질적인 비핵화》를 고집하며 평양수뇌상봉을 거부한 보수야당들은 더이상 북남대화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보수야당들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설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통일교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로 하여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왔다. 이런 조건에서 북남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전쟁의 재난밖에 초래될것이 없다.

1970년대 북과 남사이에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채택되였지만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남침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체제대결을 고취하다 못해 《통일불가능론》까지 내들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비범한 예지로 조국통일운동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10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이 방안은 련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통일국가의 성격과 국호, 그 대외적지위 등을 북과 남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있다.

때문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사상과 정견, 신앙이 어떠하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관계없이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접수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련방국가가 실행하여야 할 10대시정방침도 전민족적통일국가로서의 성격과 사명, 전체 조선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진행하고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민족련합군의 조직, 해외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의 옹호,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등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민족의 통일념원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조국통일이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있고 북과 남에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북과 남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련방제통일은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전쟁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각이한 계급, 계층과 정치세력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련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였다.

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발표되자마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도》로 적극 지지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는 과정에 내놓으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조국통일방안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북과 남의 단결로 련방국가를 수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한다면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것이며 삼천리강토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스스로 제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지금 우리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격동과 관심, 기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된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들에 대해 세계는 한결같이 지지환영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차례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미국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식밖의 소리들이 울려나와 사람들의 실망을 자아내고있다.

구태의연한 《대조선제재유지》주장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9월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국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대조선제재는 유지될것이다.》, 《조선반도안전은 대북제재결의의 완전한 준수에 달려있다.》고 그루를 박았는가 하면 미국무장관 폼페오 역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회의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모든것이 되돌아갈수 있다.》, 《유엔성원국들은 대조선제재결의를 존중해야 한다.》, 《제재결의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참가국들을 긴장시켰다.

미국무성 대변인과 유엔주재 미국대사 헤일리도 《북이 대화에 나온것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북핵위협이 없다고 확신할수 있을 때까지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을것이다.》고 력설해대고있다.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물론 미국이 제재유지를 떠드는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조미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에도 미국의 보수적인 정객들과 전문가들, 언론들지어 미국무성을 비롯한 행정부내에서조차 《제재, 압박》타령이 그치지 않아왔다.

문제는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환영일색으로 온 세계가 끓고있는 마당에 와서까지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재유지》발언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제재문제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고 부정이며 전쟁이나 다름없는 적대행위로 간주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사실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는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미행정부로서는 그에 사의를 표시하는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상대의 선의적인 조치와 화해의 손길에 《제재유지강화》라는 가시몽둥이를 내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인사불성이고 무례무도한 처사인가.

말이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여야 한다.

지금은 조미관계개선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단계이며 신뢰구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가장 극단적인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조미사이에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것은 사실상 기적같은 일로서 그자체가 쌍방이 지난 시기의 관행과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신뢰구축에 전력을 다할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상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아무런 화답도 없이 오히려 《지속적인 제재유지》라는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자극만 한다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대화의지, 관계개선의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은 비핵화과정에 대한 리해부터 바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유발시킨 장본인이다. 우리가 핵보유라는 아름찬 길을 선택한것도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때문이였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그 발생근원부터 제거하여야 하며 그것이 없는 해결이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핵문제와 관련한 제재라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받아야 마땅하다.

신뢰구축을 통한 조미관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진전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리해이며 이것이 비핵화과정의 순리이고 필연적인 절차이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비핵화는 신뢰구축을 영양분으로 하여 자라는 조미관계개선이라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라고 할수 있다.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것은 농사도 짓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제재》가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근본요인의 하나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 없이 《제재유지》같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자극하며 신뢰조성을 해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1994년 10월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이 어떻게 되여 핵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상기해보면 그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미고위정객들의 말처럼 제재를 하지 않으면 모든것이 되돌아가는것이 아니라 제재타령으로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에 그늘을 던지는 미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가 모든것을 원점으로 회귀시킬수 있다는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가이다.

본말을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타당치 못한 구실을 내대며 대조선제재를 고안해냈고 그 타당치 못한 구실마저 없어진 지금에 와서도 제재를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강도적이며 변덕스러운 처사는 저들마저도 어느것이 사실이고 어느것이 허위인지 가려보지 못할 지경이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에서 관계개선을 약속하고도 제재를 계속 가하려는 그자체가 얼마나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순적인 행태인가.

이것이 신뢰를 곧잘 외우는 미국의 진짜 자화상이다.

결국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가 목표라고 하면서 그에 조급성을 드러내고있지만 저들스스로가 비핵화실현에 장애를 조성하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우리가 제재에 못 견디여 대화에 나왔다고 하는 미고위정객들의 사고는 더욱 아연함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제재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장장 70여년이나 지속되여왔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 미국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양보라도 받아낸것이 있는가.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고있는 자주적인 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자주성이 가장 강한 존엄있는 인민이다.

미국의 끈질긴 제재압박책동은 오히려 우리 인민의 자주신념과 자강력만을 백배하여주었을뿐이다.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제재만능의 허황한 꿈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는데 바로 미국의 비극이 있다.

꿈이란 어디까지나 꿈이지 현실은 아니며 허황한 꿈은 꾸지 않는것보다 못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는 결코 미국에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것이다.

제재문제로 말하면 조미협상의 진전과 조선반도비핵화를 바라는 미국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미국이 제재로 얻을것은 하나도 없으며 불리해질것은 다름아닌 그들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제재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다.

미국이 리성적인 판단과 사고력을 가졌다면 《제재유지》에 집착할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비핵화실현의 근본전제인 신뢰조성에 성실한 태도로 림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기회는 아무때나 오는것이 아니다.

미국은 스스로 제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조남진

대결시대의 낡은 관행은 버려야 한다

온 민족과 세계를 또다시 들끓게 한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가 있은 때로부터 여러날이 지났다.

그 흥분과 충격은 우리 민족의 심금을 계속 울려주면서 커다란 지지와 환영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져 내외의 큰 실망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시청앞광장에서는 해병대사령부의 주관과 서울시의 후원하에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서울수복》이라는것을 기념하는 놀음이 요란하게 벌어졌다.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한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국기와 《유엔군》고용병들의 입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에서 죽은자들의 유해와 유품, 무기 및 장비전시회, 군악대연주, 연희고지전투추모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 기념놀음에서는 동족을 자극하는 대결분위기가 고취되였다.

력사적인 평양공동선언채택으로 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있는 때에 서울한복판에서 상대방을 겨냥하여 벌려놓은 이번 광대극은 구태의연한 대결관념의 발로로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 정세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올해에 들어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는 불신과 론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를 타결하는 새로운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대결과 단절의 시대에서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에로 치닫던 북남관계는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이 이룩되였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평양수뇌상봉은 영원히 잊지 못할 력사의 순간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동력을 살리는 선언》이라고 격찬하면서 그의 리행을 요구하는 기운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가속화해나가는것은 민족의 지향이며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하나라도 취하기 위해 애쓸 대신 상대방의 면전에서 대결광대극을 벌려놓은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북과 남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에서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확약하였다.

북과 남이 서로 손을 잡고 앞을 내다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관례》니 뭐니 하면서 수치스러운 동족상쟁의 과거를 찬미하는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며 비극적인 전쟁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속심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마주앉아서는 화합과 평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남조선당국의 앞뒤가 다른 행동은 내외의 비난만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돌아다보며 살지 말고 내다보며 살라는 말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대결시대의 관행들을 답습하는것이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완화흐름에 찬물을 끼얹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력사의 격류에 밀려난자들의 최후발악

지난 4월 27일 긴긴 세월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뜻깊은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된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경사이며 특대사변이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여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안전의 새봄을 마련한 위대한 선언,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제정치흐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온 중대한 선언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조선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온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찬동하고있으며 여야정객들도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은 제5차 북남수뇌상봉을 계기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국회》비준동의문제를 더욱 여론화하고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조선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4.27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악랄하게 반대해나서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준동에 협조할수 없다.》, 《국회까지 남북관계개선에 발벗고 나서고있어 심히 우려된다.》느니 뭐니 하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고있다.

이보다 앞서서도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비핵화라는 현물을 보지 않고 현찰만 준 이 선언을 국회비준한다는것을 절대 용납할수 없다.》, 《국회비준을 얻고자 하는것은 실질적인 유엔안보리사회제재나 미국의 제재속에서도 대북경제협력을 하겠다는것과 다를바 없기때문에 동의할수 없다.》, 《위험한 도박》이라고 뇌까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을 우롱하고 모독하였다.

이 모든것은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거세찬 격류에 밀려난 반통일대결광신자들의 최후발악에 불과한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지어 미국내에서까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은 북조선의 선의에 부응하여 제재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신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민심과 대세의 요구에 합세해나서지는 못할망정 외세에 편승하여 날강도적인 반공화국제재와 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야말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천하역적무리들이다.

죄와 벌은 한가지에서 자라는 법이다.

북과 남이 만들어가는 새력사에 도전하는 보수패당의 파멸은 필연적이다.

력사적으로 민족공동의 소중한 합의들을 악랄하게 부정하면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남조선보수패당은 민족앞에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으로 하여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최진옥

이 땅을 넘보는 피묻은 전범기

바다건너 섬나라 족속들이 10일부터 14일까지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함선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고 경악스럽게 우겨대고있어 세인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1889년에 일본해군이 군함기로 지정하면서부터 일본군의 군기로 된 《욱일기》는 지난 20세기 일제가 《동양제패》를 부르짖으며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할 때 사용함으로써 피비린내나는 전범기로, 일본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되였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욱일기》는 그 사용이 금지되였다.

국제사회는 이미전부터 나치스상징물들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여있는것처럼 일본의 《욱일기》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에 의해 되살아난 《욱일기》는 《평화》의 간판을 달고 세계 바다의 그 어디에나 뻐젓이 머리를 내밀고있다. 이제는 그 도수를 넘어 조선민족이라면 멀리서 보기만 해도 치를 떠는 《욱일기》를 공공연히 달고 제주도에 들어오겠다며 우리 민족을 우롱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욱일기〉는 우리의 삶을 짓밟은 끔찍한 전쟁의 표징이며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야욕의 산물이다.》, 《〈욱일기〉는 명백히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며 아픔과 치욕의 력사를 돌이켜보게 한다.》,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에 오려 한다면 관함식참가를 불허해야 한다.》며 일본의 파렴치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방위상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는것은 비상식적인데다가 례의가 없는 행위이다.》며 얼토당토않은 수작질만 해대며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도리여 제편에서 을러메고있어 겨레의 민족적분노를 더더욱 분출시키고있다.

과거침략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군국주의상징인 《욱일기》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향해 《비상식적이며 례의가 없는 행위》라고 지껄이는 섬나라족속들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날강도들이다.

일본이 그 무슨 관함식이라는데 《욱일기》를 뻐젓이 달고 참가하겠다는것은 일본은 당당히 전쟁가능한 국가이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것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과시하겠다는 오만한 심보가 깔려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당국은 《일본정부는 국제적상례를 지켜주기 바란다.》, 《일본측과 계속 소통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요청과 립장을 잘 리해해달라.》고 하면서 구차스럽게 빌붙고있는 판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평화분위기에 배치되는 관함식이라는 놀음을 벌려놓은 자체가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는 섬나라족속들에게 지랄명석을 깔아준것으로 된다.

세월이 흐르면 상처는 아문다고 하지만 지난 세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처는 오늘도 아물지 않고있다.

아마도 땅에 묻힌 우리 선조들이 삼천리강토를 피바다로 만들고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이름마저 빼앗다 못해 조선녀성들에게 대를 두고 지울수 없는 치욕을 남겼던 일본사무라이후예들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조선반도의 수역에 들어선다는 소리를 들으면 땅속에서도 대성통곡하며 분노의 치를 떨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비굴하게 섬나라족속들에게 《욱일기》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것이 아니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안권일

《〈자유한국당〉본인들부터 특수활동비를 밝히라》

—남조선 각계층이 주장—

온 세계를 충격과 감탄속에 잠기게 하였던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인 조미수뇌분들의 만남과 그 결과인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여러달이 흘렀다.

장장 수십년세월 불신과 대결로 쌓이고쌓인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것을 확약한 싱가포르에서의 조미공동성명을 조미 두 나라 인민은 물론 온 세계가 열렬히 격찬하며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그 리행은 조미 두 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바로 세계여론이 일치하게 평가하는것처럼 《선비핵화후체제보장》을 떠들며 어떻게 해서나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미보수정객들의 굳어진 랭전사고방식때문이다.

최근 미보수정객들이 노는 행동을 보면 그것은 결코 틀린 소리가 아니다.

지난 9월 26일 미의회 상원외교위원회는 공화국의 그 무슨 《강제수용소》철폐를 요구하는 결의안과 대조선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안심법안》이라는것을 가결하는 놀음을 벌렸다.

《강제수용소》철폐결의안에는 《수용소》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공화국 성원들에게 추가제재를 부과하며 《북조선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설립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아시아안심법안》에서는 대조선제재를 포함한 대조선정책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전례없이 강화하도록 규제하는것과 함께 대조선정보류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회계년도까지 1 000만US$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있는 때에 대조선적대시법안들을 련이어 조작해내며 제동을 거는 미의회의 보수정객들의 행동은 그들이 조미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흐름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지고보면 이번에 미의회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조작한 대조선적대시법안들은 결코 새로운것들이 아니다.

미국이 지난 시기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의회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날조된 대조선적대시법안들은 지난 시기 《인권》소동의 연장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략과 병적거부감에 기초하고있는 완전한 생억지이며 날강도적인 문서장들이다. 시대는 바뀌여졌는데 아직도 낡은 시대의 랭전관념에 포로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보수정객들의 추태는 실로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이다.

력사적려정에 합세해야 한다

지금 력사적인 평양북남수뇌상봉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조미대화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있는데 대해 내외가 한결같이 지지환영해나서고있다.

이러한 때에 미의회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조선적대시법안들을 련이어 조작해낸것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미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고의적인 도발행위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현 미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조미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역전시켜보려는 미국내 보수정객들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를 낸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조치에 상응한 조치로 대답해나설 대신 왼새끼를 꼬며 제재강화와 인권압박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의회의 책동은 조미관계가 무엇때문에 진척되지 못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보수정객들은 저들의 정략적목적에만 눈이 어두워 구태의연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미국의 안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력사적려정에 합세해나서야 한다.

조미관계는 미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될수 없다.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불순세력들의 악의적행위들은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내외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뿐이다.

김재석

인민이 마음껏 배우는 나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조국이라는 숭엄한 부름의 참뜻을 헤아리고자 많은 글과 이야기를 남기였다. 그러한 글들을 읽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는가고 생각해보았다.

조국과 떨어져있어도 누구보다 그 물음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우리 재일동포들이다.

그러한 조국이 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계기에 나는 조국을 방문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교육현실을 보며

나 역시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자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가슴속에 안고 산다.

더우기 자식들에게 누구보다 훌륭한 교육을 주고싶은것은 나만이 아닌 많은 어머니들의 심정일것이다.

그래서 조국방문시 평양교원대학에 대한 참관은 특별히 나의 관심을 끌었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자식들을 훌륭한 대학에 보낼수 있는 조국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행복할가?)

출판물을 통해 평양교원대학이 훌륭히 일떠섰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직접 찾고보니 듣던바 그대로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춘 대학은 기대를 넘어 놀라움을 자아냈다.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나는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의 교육현실을 떠올렸다. 세계적으로 일류급의 교육시설들을 자랑하는 대학들과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명문대학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마음껏 배울수 있는 곳으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이렇듯 훌륭한 교육조건을 갖춘 대학에서 배움의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니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우월한 교육제도에 대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에서 실습을 하고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내 조국을 빛내이는 참다운 교육자들로 자라주십시오.》

대학에 대한 참관을 마치며 나는 이렇듯 훌륭한 교육환경과 조건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조국의 새 세대들이 마냥 부럽고 사랑스럽게만 느껴졌다.

바로 그 모습속에 고난속에서도 밝고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이 있고 세월이 흘러도 진할줄 모르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는것 아니랴.

그 불패의 힘으로 조국은 날에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신화들을 창조해가고있다.

여기서 누구나 마음껏 배운다

이번에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속에는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공화국창건 70돐경축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일군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한 나와 달리 그는 총련지부위원장대표단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고있는터였다.

호텔에서 반갑게 상봉한 우리들은 조국방문의 나날에 있은 가지가지의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나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인민사랑의 세계가 낳은 과학기술전당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나도 대학시절에는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과학기술전당에 있는 기초과학관에서는 다시 학생이 되는 기분이였다니까요.》

오랜 총련일군으로서 조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였지만 이번에 과학기술전당에 처음 가보게 된 그는 그 웅장함과 방대한 과학기술자료들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도서관이나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독특하고 포괄적인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처음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연과학에 조예가 깊고 학창시절에는 대단한 독학가였던 그는 과학기술전당의 열람실들과 전시물들을 보면서 흘러간 청춘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면 기꺼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싶다고 말하였다.

나는 TV에서 보았던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식장면이 눈에 떠올랐다.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새해의 첫 아침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온 나라 인민들의 축원과 인사를 받으셔야 하실 새해의 그 아침에 과학으로 비약할 조국의 래일과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이의 모습에서 나와 우리 동포들은 위대하신 수령님들의 모습을 뵈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위대하신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인민의 세상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사는 곳이 바로 나의 조국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기에 조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모시던 그때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이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애국의 구슬땀들을 바쳐가고있다.

조국방문의 나날은 길지 않았지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해만 지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은 조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신념을 깨닫게 하여주고있다.

재일동포 오영순

공화국인 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국

지금 온 나라 인민은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반드시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결의에 넘쳐있다.

힘이 강해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담보할수 있으며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공화국의 70년로정은 력사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전진비약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왔다.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도 비상히 높아졌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무섭게 솟구쳐오르는 조선의 모습에서 세계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이다.

일심단결은 나라의 승리적전진과 부강조국건설의 강위력한 추동력이다.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위력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여온 공화국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단결의 위력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화폭들을 끝없이 펼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위협공갈과 제재압박이 극도에 이르고 시련이 겹쌓였지만 나라의 정치적안정이 확고히 보장된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였기때문이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혼연일체의 거대한 힘은 아침과 저녁, 분초가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조국번영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았다.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억척의 성새로 다져지게 된것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인민을 한품에 안아 정과 열을 주고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일심단결의 대화원은 날로 만발하고있다.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전체 인민이 자나깨나 령도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일심단결이야말로 공화국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바로 여기에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공화국은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끊임없는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의 강국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천만대중의 강한 정신력과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높은 과학기술력은 공화국의 긍지이며 힘이다. 무진막강한 자강력을 가진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있다.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자강력을 억세게 다져온 투쟁행로이다.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증대시켜온 자강력은 최근년간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여온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속에서도 공화국이 거창한 창조와 건설, 비약과 변혁의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놓게 한 원동력이였다.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 높은 민족적자존심은 무에서도 유를 만들고 남들이 못한것도 보란듯이 해나가는 기적과 위훈을 낳았다. 자력갱생을 전진방식, 창조방식으로 하고 자강력을 부단히 다져왔기에 공화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고있다.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 위력해지는것이 공화국의 자강력이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속에 자력자강의 승전포성들이 다발적으로 울려퍼지고있다. 도처에 주체화, 현대화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생산적앙양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오늘 공화국이 지닌 강위력한 힘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으며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량수남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조국을 받드는 요술사가정

평양교예학원 요술강좌 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김택성선생의 가정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요술사가정이다.

80살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택성선생이 왕성한 열정을 안고 요술사후비양성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면 맏아들 김철은 국립교예단 요술과 과장으로, 둘째아들 김광철은 국립교예단 연출가 겸 배우로 만사람의 절찬을 받는 이름난 요술사들이다. 뿐만아니라 손주 김주성, 김광성도 기대가 촉망되는 재능있는 요술배우로 성장하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사람들이 김택성선생의 가정을 두고 《흔치 않은 요술사가정》, 《복받은 요술사가정》이라며 부러워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군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나 우리 자식들의 요술사적재능이 타고난것이 아닌가고 묻군 하지만 우리 가정이 3대에 걸쳐 요술을 해온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요술계의 《왕》으로

원래 김택성선생은 공중을 날며 여러가지 교예동작들을 수행하는 공중교예배우였다고 한다.

그러던 주체53(1964)년 어느날 조선인민군교예단(당시)에서 《공중비행》과 《회전비행》작품에 출연한 그의 공연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동작과 몸동작이 빠르고 정확한 그를 요술배우로 키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본인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싹을 찾아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김택성선생은 평양교예단(당시)의 요술배우로 새 출발을 하게 되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에 재치있는 요술형상으로 관중들의 절찬을 받군 하던 김택성선생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신기한 함》, 《양산재주》, 《옷갈아입기》, 《얼굴변하기》, 《전화기 띄우기》…

김택성선생이 창작출연한 요술작품들은 200여편에 달하며 선생은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국제교예예술축전과 공연들에 참가하여 개화만발하는 주체교예예술의 면모를 과시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에서 진행된 까를로비와리 제10차, 14차, 16차 국제요술축전들에서 축전최고상인 그랜드상을,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제13차 국제요술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1981년 7월에 열리였던 제16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세계요술왕》칭호를 받았다.

인민의 사랑받는 요술로 되기까지

그 잊지 못할 나날들을 되새겨보며 김택성선생은 말하였다.

《요술계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때만 해도 우리 요술은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술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종목으로 될수 있을가?

이러한 번민과 모대김속에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던 주체60(1971)년 10월 어느날 김택성선생은 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날 김택성선생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요술이 지내 단순하고 손재간을 부리는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요술을 발전시키자면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형식과 내용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요술을 큼직큼직하게 하면서 다양하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 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택성선생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완성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신심이 생긴다고, 대담하게 원정공연에 나가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리고 몸소 비행장에 나가시여 원정공연의 길에 오른 김택성선생일행을 바래워주시였으며 첫 원정공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에는 못내 기뻐하시며 이제는 당당하게 국제현대요술축전에도 나가야 한다고 떠밀어주시였다. 언제인가 국제현대요술축전에 참가하는 요술기자재수송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비행기까지 동원시키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고 제16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1등과 함께 《세계요술왕》의 칭호를 받고 조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교예극장에 나오시여 그를 축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택성선생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요술계에서 활동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으며 그가 나이가 많아 무대에 설수 없게 되였을 때에는 요술사후비들을 키우도록 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그의 두 아들(김철, 김광철)도 여러차례 국제요술축전들에서 우승하고 **김일성**상계관인, 인민배우들로 자라났으며 오늘은 손자들도 요술무대에 서게 되였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 김택성선생의 가정은 대대로 요술로서 조국을 빛내이는 요술사가정으로 되였던것이다.

김택성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이나 다 그러하듯이 요술배우역시 자기 직업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 열정이 안받침되여야 성공할수 있다. 그 열정과 사색의 밑바탕에 조국을 빛내이려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술로 조국을 받드는 애국자가정.

이런 가정들이 있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이 온갖 꽃이 만발한 화원마냥 그처럼 아름답고 짙은 향기를 풍기고있는것 아니겠는가.

오늘도 김택성가정은 고마운 조국을 더욱 빛내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보람찬 창조활동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소기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할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따라 동생들과 함께 공화국의 품에 안긴지 엊그제같은데 벌써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보낸 20여년, 참으로 그 나날은 꿈만 같은 행복을 누려온 잊을수 없는 날과 달들이였다.

남조선에서 살 때 아버지와 우리 3형제는 차사고로 크게 다치였다.

차를 몰다가 제일 심하게 다친 아버지는 당장 대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였지만 어린 자식들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를 부담할수 없어 수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던 아버지의 마음은 자연히 돈 한푼 안들이고 누구나 마음껏 치료를 받는 인민의 참세상 공화국으로 쏠리게 되였다.

지구를 멀리 에돌아 마침내 공화국의 품에 안기던 날 아버지는 인민중시의 자주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된 끝없는 행복으로 하여 온밤 잠들수 없었다고 하였다. 인간의 자주적권리가 참답게 보장되는 가장 우월한 공화국제도에 대한 동경심을 품고 공화국의 품에 안긴 아버지는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힘껏 일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조국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정어린 선물도 가슴가득 안겨주었다. 그리고 공업도시 함흥시에서 우리 가정이 안착된 생활을 하도록 덩실한 새 집에 가구비품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날에날마다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그칠줄 모르는 우리 가정에 막내동생이 출생하여 기쁨을 더해주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나는 어려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다. 이런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밤을 새우고 또 얼마나 많은 동무들이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는지 모른다. 자신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에 이끌려 나의 학업성적은 몰라보게 높아졌고 나는 중학교(당시)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였다.

나라에서는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에서 공부하고싶은 나의 마음속 희망까지 헤아려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불러주었다. 대학입학통지서를 받아안던 날 공화국의 품에 안기니 이렇게 바라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기쁨의 눈물을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늘 자식들에게 어버이장군님은 우리 가정의 구세주이시고 행복의 전부이시라고, 장군님의 품속에서 온 겨레가 함께 살 통일의 그날은 꼭 온다며 노래 《조선은 하나다》를 피아노로 들려주군 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우리곁에 없다.

하지만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형제는 언제한번 외로운감을 느껴본적이 없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과학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던 우리 형제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그날 우리 온 가정은 흘러온 지난날들을 추억하며 한밤을 지새웠다.

진정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기에 나와 동생들모두가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몇해전 나는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고 대학교원을 하는 남편과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

정말이지 꺼져가던 우리들을 한품에 안아 새 생명을 주고 값높은 삶을 안겨준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겨살 진정한 조국의 품이다.

하기에 우리 온 가정은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을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함흥시 회상구역 새거리동 신정아

개천절 기념행사 진행

개천절기념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길송,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들, 김철훈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이어 기념보고를 윤정호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과학적인 통찰력, 정력적인 령도로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그는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오늘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족적진군에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힘차게 떨쳐나설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조국통일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제16차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 진행

제16차 전국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가 9월 29일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50여명의 낚시질애호가협회 회원들이 경기에 참가하였다.

이번 경기는 바다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과 관중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물의 온도와 흐름속도, 물고기들의 습성에 맞게 낚시도구와 미끼를 선택한 선수들은 경기시작을 알리자 출렁이는 푸른 바다에 낚시줄을 드리웠다.

그들은 대낚시, 기계대낚시를 기본으로 두틀까지의 도구를 리용하면서 보람찬 로동의 여가시간에 습득하여온 물고기잡이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평양시의 오성진선수가 경기시작 20분만에 제일먼저 삼치를 낚아냈다.

이에 뒤질세라 선수들이 재치있는 솜씨로 삼치, 쥐치 등을 승벽내기로 연방 잡아올릴 때마다 관중들속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경기순위는 제정된 시간내에 잡은 물고기마리수와 총질량에 따라 결정되였다.

경기에서는 강원도의 오금성선수에게 1등상이, 평양시의 오성진선수에게 2등상이, 평안북도의 강진구선수에게 3등상이, 황해북도의 송경남선수에게 기술상이 수여되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낚시도구창안품전시회에서는 착상이 새로운 낚시도구들과 질좋은 미끼들을 내놓은 남포시, 평양시, 강원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중세의 진보적명인이였던 연암 박지원

1737년에 출생한 이름난 실학자이며 작가인 박연암의 본명은 박지원이다.

철학, 력사, 천문, 지리, 풍속제도,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던 박연암은 빈말공부만을 일삼는 주자성리학과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불합리한 봉건질서를 개혁할것을 주장하는 실학사상들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그는 자기의 주장과 사회개혁리론들을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작품창작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박연암은 1754년에 옛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첫 단편소설 《광문전》을 창작한 후련이어 《민옹전》(1757년), 《김신선전》(1765~1766년경), 《우상전》(1767년) 등 《방경각외전》에 들어있는 9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그중에서 《량반전》(1760년대)은 량반들의 무위무능을 폭로비판하고 그 생활의 종말을 선고한 풍자소설로서 18세기 우리 나라 소설문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그는 또한 려행을 즐기여 전국각지의 명산을 두루 답사하면서 시를 썼는데 장시 《해인사》, 7언률시 《농사집》, 7언절구 《새벽에 길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와 같은 시작품들은 려행길에서의 체험세계를 읊은것이고 장시 《총석정에서 해돋이구경》은 1764년에 금강산을 중심으로 동해안일대를 유람하면서 지은것이다.

박연암은 《천원지방설》을 반대하고 지구는 둥글고 부단히 돌고있다는 학설을 주장하였으며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것으로 보려는 소박한 유물론적견해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불합리한 봉건통치제도를 부분적으로 고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큰 나라를 무턱대고 떠받드는 량반유학자들의 사상관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적서차별의 철폐, 화폐제도의 개편, 상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그는 1780년에 청나라로 가는 사절단과 동행한 후 4년간의 심혈을 기울여 장편려행기 《열하일기》를 집필하였다. 《열하일기》는 려행과정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묘사대상과 창작의도에 따라 《수레의 제도》와 같은 정론, 《일신수필》의 여러 장들과 같은 수필, 《허생전》, 《범의 꾸중》과 같은 소설, 《피서록》과 같은 종전의 시화 등 각이한 형태의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대서사시적화폭의 장편려행기이다.

그는 1801년에 있은 《신유사옥》을 계기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저술과 료양으로 날을 보내다가 180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문집인 《연암집》(전6권)에는 《열하일기》, 《과농소초》와 같은 독자적인 체계의 저술외에도 시 42수와 전, 론, 의, 서(긴편지), 기, 소(상소문) 등 여러가지 한문체형식의 산문작품을 합하여 근 270편이 올라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의 특산 송이버섯

송이버섯은 송이버섯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이다.

우리 나라의 송이버섯은 그 식용적가치에서나 약리적특성에서 세계적으로 단연코 첫손가락에 꼽히우는 제일가는 버섯으로서 산삼, 고려인삼과 더불어 조선의 이름난 특산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송이버섯에는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탄수화물, 각종 필수아미노산들과 비타민 C, B군, E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타민들이 풍부히 들어있다.

또한 린, 칼리움을 비롯하여 사람의 건강에 좋은 필수미량원소들도 많이 들어있다.

송이버섯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조화롭게 해주며 소화가 잘되게 하고 아픔을 멈추게 한다.

또한 비루스억제효과, 혈중콜레스테롤내림효과, 면역조절효과가 있으며 리뇨제로도 쓴다.

송이버섯은 화강암, 석영조면암, 사암, 규암 등이 풍화된 토양, 양지바르고 물이 잘 빠지며 부식질이 적은 척박한 소나무숲 또는 소나무와 넓은잎나무들이 섞인 숲의 토양에서 가을철에 무리로 돋거나 널리 퍼져서 자라며 일정한 면적의 버섯무리를 형성한다.

송이버섯은 향기가 독특하고 맛이 특별히 좋은것으로 하여 생버섯을 그대로 리용하거나 소금절임, 통졸임 등 가공식품을 만들어먹으며 가루를 내여 향미료로도 쓴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삼불암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에서 표훈사로 올라가는 길 좌우에 3각형으로 생긴 화강석 바위 2개가 이마를 맞대듯이 서있는데 그중 오른쪽의 바위가 삼불암이다.

높이가 8m, 길이가 9m인 이 바위의 정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에 불상들이 새겨져있다. 이 바위가 삼불암이라고 불리우게 된것은 바위정면의 3불상옆에 《삼불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진데서 유래되였다.

삼불암의 불상들가운데서 가장 잘 된것은 정면의 3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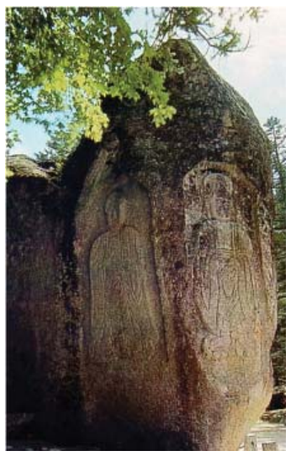
석가불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미륵불, 왼쪽에 아미타불을 놓은 이른바 3세불이다.

이 부처들은 모두 선 자세이며 그 높이는 각각 3.7m이다. 머리부분이 조금 커진 느낌은 있으나 높은 돋을새김으로 질감을 세밀하게 잘 나타내고 형상적의도를 충분히 표현하고있다.

바위의 왼쪽측면에는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조각의 높이 2.3m)의 립상을 새겼다. 후면에는 길이 3.3m, 너비 1.7m정도로 네모나게 면을 다듬고 가로 15줄, 세로 4줄로 높이 40cm정도의 앉은 부처 60상을 낮은 선새김으로 새겼다.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로 구성된 3세불의 배치와 바위에 새긴 부처들의 양식으로 보아 이 바위조각은 고려 중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본사기자



사화

온달과 평강공주 (2)

글 최규환, 그림 김영희

공주는 궁중을 나오는 길로 바로 온달의 집을 찾았다. 이사람 저사람에게 두루 물어 그는 그날 저녁에야 겨우 온달의 집에 이르렀다.

그것은 성밖의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느티나무가 한그루 선곳이였다.

공주는 조용히 뜨락으로 들어섰다. 온달은 마침 산으로 느릅나무껍질을 벗기러 가고 없었다. 방문앞에 소경어머니가 혼자서 적적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이 댁이 온달네 댁이십니까?》

공주는 공손한 말로 물었다.

《그렇소, 그런데 뉘시오?》

《저는 공주입니다. 아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공주님이 이렇게… 황송하오이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쩔바를 몰라 허둥지둥하였다.

공주는 집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온달의 집은 무척 가난하였다. 집이란것이 산기슭의 오막살이였으며 그우에 나무껍질을 덮어서 겨우 비를 막게 된것이였다. 그리고 방문과 부엌문이라는게 모두 흙벽에 쾡하니 뚫어진 맞구멍에다 거적을 하나씩 드리운것이였다.

그곳에 어머니가 혼자서 누데기를 걸치고 앉아있었다.

공주에게는 궁중을 나선 뒤로 그날 하루동안 보고 들은것이 모두가 새로왔다.

어쨌든 공주가 세상에 나서 궁궐밖으로 한걸음이라도 혼자 나선것은 그것이 처음이였다. 물론 궁중에서 산놀이니 들놀이니 하여 이따금 세상바람을 쐰 일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것은 가마에 앉은채 세상구경을 하고 수많은 궁녀와 신하들의 부축과 호위를 받으며 다니였다.

그러니 공주가 혼자서 궁궐을 뛰쳐나온것만 해도 여간한 큰 결심이 아니였다. 크게 마음을 다잡은 공주는 눈앞의 모든 정경에 놀라지 않으려고 애썼다.

공주가 늙은이의 곁에 앉으며 물었다.

《아드님은 어데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쥐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처음부터 의아스러운 얼굴이였다. 그는 공주가 찾아온 까닭이나 그의 결심을 알리가 없었다.

《무슨 일로 내 아들을 찾으시오?》

어머니는 그러면서 공주가 어루만지는 손을 슬그머니 뽑고 뒤로 물러앉았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내 아들은 가난한탓으로 하여 산에 가 느릅나무껍질을 벗기거나 이따금 남의 집을 찾아 구걸을 하는것밖에 다른 죄는 없소.》

《그런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드님을 만나 청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청할 일이라니?》

어머니는 한층 더 믿지 못해하는 얼굴이였다.

《내가 앞을 못보기는 하나 당신의 몸에서 향기가 풍기고 당신 손은 마치 솜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하오. 그런 당신이 우리 온달과 같은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청할 일이 있겠소. 혹시 청할 일이 있기로서니 혼자 이런곳을 찾아오기까지 하겠소.》

그리하여 공주가 거듭 간청한 뒤에야 어머니는 의아쩍어하면서도 겨우 온달이 뒤산에 느릅나무껍질을 벗기러 갔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럼 날도 저물어가니 제가 아드님을 맞아오기로 하지요.》

그리고는 집을 나섰다. 공주가 길을 찾아 막 산기슭에 다달았을 때 그는 온달과 마주쳤다.

마침 온달이 느릅나무껍질을 한짐 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였다.

공주는 그가 온달인줄 곧 알아차렸다.

《거기 오시는분이 혹 온달이 아니세요?》

공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온달은 대뜸 눈이 둥그래졌다.

《왜 그러시우.》

《다른게 아니라…》

공주는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려 대충 그를 찾아오게 된 까닭을 말하였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요!》

물론 온달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을리가 없었다.

공주는 몹시 난처한 얼굴이였다.

《만일 그게 거짓이라면 어찌 내가 여기까지 그대를 찾아왔겠소이까.》

《저만침 물러서오. 내 눈에는 그대가 귀신이나 여우로밖에는 보이지 않소. 공주가 나에게 시집을 오다니, 아무래도 당신은 사람같지 않소.》

온달은 끝내 믿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공주를 돌아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공주는 실망하였으나 그렇다고 온달을 탓할수도 없었다. 공주는 생각을 돌리고 그날밤은 부득이 온달의 집 삽짝문앞에 몸을 의지하여 새웠다.

그것은 밤새도록 소쩍새가 울고 찬이슬이 풀숲에 내리는 고적한 밤이였다.

그 이튿날 아침이였다. 공주는 다시 온달의 모자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자는 끝내 그의 말을 진정으로 생각지 않았다. 온달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아무렴 그걸 누가 진정으로 믿을 사람이 있겠소. 내 아들은 못나고 루추하기 짝이 없으니 당신의 짝이 된다는것은 당치 않은 말이오. 또 당신과 같은 한 나라의 귀한 공주가 우리와 같은 미천하고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온다니 그것부터 도무지 믿을수가 없소.》

그리고 그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온달은 종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공주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한말의 낟알도 찧어서 함께 먹을수 있고 한자의 베도 기워서 갈이 입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꼭 재물이 많고 귀한 사람이여야 같이 살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공주는 사리를 밝히여 이야기를 하였다. 온달의 어머니도 그제는 더 할 말이 없는듯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리하여 공주는 그날부터 자기 소원대로 온달의 안해가 되였다.

그 다음날이였다. 공주는 곧 그들을 위하여 먼저 집을 장만했다. 그리고 뒤이어 소도 사고 밭도 마련하였다.

공주는 그것을 미리 생각하여 왕궁을 떠날 때 자기가 쓰던 금붙이, 은붙이를 비롯한 일체의 패물을 가지고왔던것이였다.

공주는 온달과 같이 살게 된 뒤로 온달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더 잘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주는 온달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걸게 되였다.

그는 먼저 검과 창, 활 등을 갖추게 하고 남편에게 말달리기, 활쏘기를 비롯한 무예를 닦을것을 권하였다. 그것은 장차 나라의 기둥감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되기때문이였다.

먼지와 때를 말끔히 씻고 나니 온달의 외모는 훤칠하고 름름하였으며 두눈은 령롱하고 영채가 돌았다.

그가 안해의 권고에 따라 활을 메고 말을 타고 나서자 그는 곧 특출한 재질을 나타내였으며 또한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그는 항시 산과 들에서 짐승을 뒤쫓아 말을 달리고 활을 쏘았다. 그는 날마다 무예를 닦기에 힘썼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무사가 되였다. 지금까지 그가 묻혀있던것은 그의 미천한 출신과 가난한 집안탓이였다.

《바보온달》이란 이름도 이제는 옛말이 되였다.

건강에 좋은 베개높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자리에 누울 때 반드시 베개를 리용하는데 그 높이는 각이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진 베개를 베야 건강에 좋은가?

높은 베개를 베면 턱이 아래로 떨어져 기도를 좁게 만들어 코를 골게 하며 경추나 주위근육에 부담을 주어 손이 저리거나 어깨가 결리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침단명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낮은 베개를 리용하거나 베개를 베지 않는것도 건강에 해롭다.

누웠을 때 머리가 심장높이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깊은 잠을 이룰수 없으며 얼굴이 붓고 머리아픔이나 목결림현상이 올수 있다.

이 경우에 높은 베개와는 반대로 턱이 올라가는데 이때에도 기도를 좁게 만들어 호흡을 제대로 할수 없게 하며 경추에도 부담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좋은 베개의 높이는 6~7㎝ 되는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미신에 혹한 선비

거리에서 점쟁이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것을 본 한 선비가 사람들을 헤집고 점쟁이한테로 다가가 자기의 신수를 봐달라고 청하였다.

점쟁이는 생년월일을 묻고 선비의 얼굴을 깐깐히 살펴보더니 무릎을 탁 쳤다.

《당신은 팔자가 아주 좋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어디서 낳았는지 그게 문제요.》

바싹 호기심이 동한 선비를 본 점쟁이는 계속 주어섬겼다.

《만약 당신이 안방에서 태여났다면 분명 재상감이요. 만일 사랑방에서 태여났다면 당신은 감사재목이요. 당신이 만약 문어구에서 태여났다면 그저 선비지요.》

선비는 돌따서서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늙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언제 어떻게 낳았어요?》

《너를 낳기는 6월 6일에 낳았지. 저녁녘에 거리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에 바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방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너를 낳았단다.》

《그러니 내가 문어구에서 태여났단 말이예요?》

《그렇게 됐구나!》

《어머니도 참,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재상이 되는건데…》

선비는 너무 안타까와 발을 구르며 어머니를 나무랐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